전호근 <장자 그 신랄한 패러디의 세계>

13강 <남은 이야기 - 외편(外篇), 잡편(雜篇)을 읽는 즐거움>
1교시 '내버려둠'의 윤리관

▲ 외편(外篇)에 들어가며

지난 시간까지 장자 <내편> 봤어요. 내편 7편을 보고 응제왕편(應帝王篇)에서 혼돈(渾沌)이 죽는 걸로 내편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인정하기로는 <내편 7편>은 장자 자신의 저술이고, 나머지 <외편>과 <잡편(雜篇)>은 장자의 후학이나 후세의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다. 갖다 붙였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장자적 사유를 이야기로 구성한 내용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게 장자다. 이런 식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33편이고 내편이 7편인데, 나머지 26편도 당연히 장자적사유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외편> 바로 들어 가면은 변무편(駢拇篇), 마제편(馬蹄篇) 거협편, 제유편(在宥篇), 이 네 편이 나오고 오늘은 그 네 편과 추수편(秋水篇) 다섯 편에 나오는 주요문장을 한 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무편(駢拇篇)

일단 변무편(駢拇篇)요, <외편>의 첫 번째 편이자, <내편> 다음으로 여덟 번째 전체로 치면 여덟 번째 편이 되는 거죠. 변문데, 변무라고 하는 건 발가락의 군더더기 살입니다. 군더더기 살처럼, 인의를 비롯한 유가의 각종 예의 규범이 삶을 구속하는 군더더기라는 뜻으로 인제 변무편을 썼는데 그 변무편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읽어보죠. <외편>의 첫 번째 편인 변무편은 <외편>의 다른 편들과 마찬가지로 맨 앞의 두 글자를 따서 편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외편>, <잡편(雜編)>은 그렇습니다. 앞의 내편은 그 편의 맨 앞 의 글자를 따서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 편에서 주장하는 대지(大旨), 가장 중요한 뜻을 따서 이를테면 소요유(逍遙游)니, 제물론(齊物論)이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외편은 춘추전국시대의 초기문헌과 비슷하게 이를테면 논어 맹자 같은 경우에 논어는, 학이편(學而篇)이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라고, 학이로 시작하니까 학이편 이라고 그랬고, 위정편(爲政篇)은 위정이덕(爲政以德)이라고 위정으로 시작하니까 위정편이라고 그랬고, 맹자도 마찬가지죠. 맹자견양혜왕(孟子見梁惠王)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혜왕편(梁惠王篇)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가면 순자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철롱(鐵籠)같은 일종의 자연에 관한 논의 또는 성악편(性惡篇) 인간본성이 악하다는 논의, 논문 제목 형식으로 붙였는데 장자의 <내편>

www.artnstudy.com

은 이런 식의 논문제목과 비슷하고 <외편>에 나와 있는 변무편을 비롯한 여러 편 이름은 편 앞의 맨 앞의 두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 변무(駢拇)와 지지(枝指)

그 내용을 보죠, 계속 2편의 주장은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의 본래 상태를 지킬 것을 주장하면서 유가의 인의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유가를 반대하는 일군의 장자 후학에 의해 기술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편>에서 유가에 대한 호의적인 언급이 상당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변무를 비롯한 <외편>의 앞부분은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무편 1장에 변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변무(駢拇)는 발가락의 군더더기 살이고 또 지지(枝指)가 나옵니다. 지지는 이제 육손이를 가리키는데, 이것들이 인간의 본성에 없는 군더더기인 것처럼, **유가의 인의(仁義)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어기고 삶을 구속하는 군더더기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 상반된 평가들

2장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지만 이어주면 슬퍼하고, 학의 다리가 길지만 잘라내면 슬퍼한다. 이런 말은 인제 장자 전편을 관통하는 자연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대목으로 자주 인용되죠.
3장에는, 보면 다소 기회주의적인 발언도 나오는데요. 보시죠. 도척과 백이를 들면서 도척은 제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고, 백이는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은 도둑이고, 도척이요. 한 사람은 성인, 백이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자기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외물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외물 이란 게. 도척은 제물, 백이는 명예였다는 거죠. 외물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점에서 지나친 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인제 비판했기 때문에. 인의를 추구하는 행위나 재물을 추구하는 행위나 같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성을 해친 것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도 많은데요.

비판한 내용이 보면, 왕숙민(王叔岷)이야기 나오죠. 왕숙민 같은 이는 글쓴이의 이 같은 태도를 거론하면서 인의(仁義)와 음벽(淫僻)의 사이에 머물고자 하는 인의는 이제 명예로운 일을 추구하는 거고, 음벽은 지나치고 잘못된 일이죠. 그런 인의와 음벽의 사이에 머물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인생관이다. 뿐만 아니라, 불륜불류(不倫不類)다. 이건 비윤리적이고 또, 좋지 못한 불류, 유사하지 않다.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좋지 못한 비인륜적 사고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와 반대의 학자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와는 정반대의 견해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관봉(關鋒)같은 학자들이요. 장자의 다른 편인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반면, 예를 들면 소요유편(逍遙游篇)에 낮잠이나 자겠다. 이런 걸, 관봉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무기력한 지식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반면에 2편의 경우에는 체제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www.artnstudy.com

▲통치자들의 폐단

변무편 1장을 한 번 보죠. 장자의 주장인데요. 발가락의 군더더기 살과 육손이는 태어날 때부터의 본성에서 나왔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타고나는 것보다는 많고, 더 많은 거다. 그리고 쓸데없이 붙어있는 크고 작은 사마귀는 태어난 뒤 몸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발가락의 군더더기 살이나 육손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고, 사마귀 같은 것은 태어난 뒤에 몸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람이 타고나는 본성보다 많고 본래 타고나는 것 보다 더 많은 군더더기다 이거죠. 그리고 그건 마치 이와 같다. 인의를 조작해 쓰는 이들은 이것을 중시해서 5장과 나란히 배열하지만 인의예지신 이걸 이제 5행에 배열하고 5장도 역시 5행에 배열하니까 나란히 배열하지만, 도덕의 올바름이 아니다. 원래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발가락에 군더더기 살이 붙어있는 것은 쓸모없는 살이 이어져 있는 것이고, 손에 여섯 번째 손가락이 붙어 있는 것은 쓸모없는 손가락이 심어져 있는 것이다. **오장에 본래 모습에 쓸모없는 인의 따위를 여러 갈래로 끼워 붙이면, 인의의 행위에 치우쳐서 이목의 남용(亂用) 을 통해 얻은 지식을 온갖 방면으로 부리게 된다.** 유가에서 주장하는 각종 가치규범, 인의예지신 따위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 본성에다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덧붙인 것이다. 결국 인간 본성에 해로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자연스런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인의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해친 것이 성인이란 결론이 나오고, 그 성인이 이제 통치자들이죠. 장자가 이 부분에서 변무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식의 인의예지를 억지로 만들어서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들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엔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비판하는 무정부주의적 경향**이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 자연의 본성과 사람의 인정

2장도 마찬가진데요. 2장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이 있으니까 한 번 읽어보죠. 지극한 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타고난 성능의 실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어진 것을 군더더기라 여기지 아니하며 갈라진 것을 여분의 손가락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긴 것을 남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짧은 것을 부족하다. 여기지 않는다. 이건 한 사람의 본성보다 많이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것이 덧붙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존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더 많기도 하고 더 부족하기도 하단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지만 이어주면 슬퍼하고 학의 다리가 길지만 잘라내면 슬퍼한다. 그 때문에 타고난 본성이 긴지라 잘라야 할 것이 아니며 짧은 쪽에서 보면 긴 것을 이상하다고 여길 것이고 긴 쪽 에서 보면 짧은 것을 이상하다고 여길 텐데 그게 아니란 얘깁니다. 타고난 본성이 짧은지라 이어질 곳이 아니며 근심거리로 여겨 없앨 것이 아니다. 이것처럼 사람마다 다 특이한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획일적 기준으로 놓고, 옳다 그르다하는 인의와 같은 규범은 옳은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깁니다. 생각건대 인의는 인정이 아닐 것이다. 사람이 본래 타고나는 것, 이게 인정인데, 이것이 아닐 것이다.

www.artnstudy.com

인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어찌하여 그리 근심이 많은고? 만약에 자연스런 본성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걱정 근심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앞의 1장과 마찬가지로 **인의라는 가치규범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속하고 또 짧은 짧거나 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상대, 자기와 같지 않은 것을 비정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 어찌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가릴 것인가

3장에는 좀 더 강하게 나오는데요. 3장 한번 보죠. 장과 누 두 사람이장과 누라고 하기도 하고 장과 곡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발음이 다 있습니다. 장과 누, 두 사람이 함께 양을 치다가 두 사람이 모두 모두 양을 잃어버렸다. 장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고 묻자 채찍을 옆구리에 끼고 책을 읽고 있었다하고,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고 묻자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도박하고 있었던 거죠. 한사람은 공부라고 하는 생산적인. 그게 뭐 꼭 생산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 하다가 실수한 거고 한 사람은 놀다가 실수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고 있던 일이 같지는 않지만 양을 잃어버린 것은 마찬가지다. 변무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백이는 수양산 아래서 명예를 위해 죽었고, 도척은 동릉산 위에서 이익을 탐하다가 죽었다. 이 두 사람이 목숨을 바친 목적은 같지 않으나 어쨌든 외물을 탐낸 것이다. 생명을 해치고 본성을 손상시킨 것은 마찬가지다. **어찌 꼭 백이를 옳다하고 도척을 그르다 하겠는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바친다. 그런데 그가 따라주는 것이 인의면, 세속 사람들이 군자라고 일컫고 그가 따라주는 것이 재물이면 세속 사람들이 소인이라고 일컬으니 따라죽은 것은 마찬가진데 이 가운데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으니 생명을 해치고 본성을 손상시킴에 이르러서는 도척이 또한 백이와 같을 뿐인데 또 어찌 그 사이에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가릴 것인가. 이렇게 보면 사회적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다 무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 선행을 왜 했을까 동기를 살펴보니까 결국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했더라 천국가기 위해서 했더라 이런 식의 결론을 내놓고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격렬하게 비판을 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선행이나 악행이나 다 같다면 - 취약한 논의구조

예를 들어 우리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느냐 악행을 저질렀느냐 이걸 보지 않고 그 동기를 따져 가지고 정말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 선행이나 악행이나 똑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를 테면 앞에 왕식문 같은 학자들이 불륜불류(不倫不類)다.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윤리 행위, 윤리적인 규범자체를 비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상당히 그 뭐랄까요.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할 때는 유효할지 몰라도 사실, 비판이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건강한 지평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명예를 추구하다 죽으나 재물을 추구하다 죽으나 어차피 죽었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태어나서 다 죽으니까 평가를 할

www.artnstudy.com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살다 다 죽죠.

예를 들어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가 나치에 협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데거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묘사할 때 그러죠. 그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태어나서 살다 죽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철학자가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남긴 철학적 사유가 하이데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의 존재에 대한 사유가 어떤지를 봐 달라, 내가 나치에 협력했던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면, 하이데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이데거가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존중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막상 저렇게 얘기했죠. 나는 용기가. 용기에 대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윤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본다면 '장자' 이 부분도 사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건 말건 상관없으니까 결국 다 태어나서 살다 죽었다. 죽었는데 어차피 재물을 추구하다 죽거나 인의를 추구하다 죽거나 명예를 추구하다 죽거나 다 똑같다.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선행을 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다 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 삶 자체를 평가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식의 비판의 정신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지평도 같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취약한 논의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 마제편

그 다음에 마제(馬蹄)편을 한 번 보죠. 마제편은 말굽이란 뜻입니다. '마제' 보시죠 마제 편은 말의 본성이 백락과 같은 자들의 억압에 의해서 서서히 변질되는 것처럼 사람 또한 본래 본성이 성인들이 내세우는 인의로 인해 서서히 타락해 간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제2장에 나오는 지득지세(至德之世)의 묘사는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유토피아를 그린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제편 제 1장 보죠. 무엇이 자연인지 이만큼 쉽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말은 굽으로 말굽이죠. 서리나 눈을 밟을 수 있고 서리나 눈을 밟아도 서리나 추위를 느끼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고, 털로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다.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발을 들고 뛰어다닌다. 이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본성이 그렇다. 이것이 말의 참된 본성이니 비록 높은 누대나 호화로운 침실이 있다하더라도 쓸 곳이 없다. 그런데 백락이 "나는 말을 잘 다룬다."고 해서 털을 태우고 깎아내며 굽을 깎고, 낙인을 찍으며 소유하는 거죠. 연이어 굴레를 씌우고 다리를 묶으며, 구유와 말구유요마판에 줄줄이 묶어 놓음에 이르러 죽는 말이 열에 두세 마리에 이르고 굶기고 목마르게 하며 달리고 뛰게 하며, 정돈시키고 가지런히 해서 앞에서는 재갈이나 가슴받이 장식으로 끌어대는 괴로움이 있고 뒤로는 가죽채찍이나 대나무 채찍으로 때려대는 억압이 있게 되면, 죽는 말이 이미 절반이 넘는다. 계속 보죠. 옹기장이는 "나는 진흙을 잘 다룬다. 둥근 것은 그림쇠에 꼭 맞고 모난 것은 곱자에

www.artnstudy.com

딱 들어맞는다.”고 하며, 목수는 “나는 나무를 잘 다룬다. 굽은 것은 갈고리에 꼭 맞고 곧은 것은 먹줄에 꼭 맞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체 진흙이나 나무의 본성이 어찌 그림쇠 곱자 갈고리 먹줄에 꼭 맞기를 바라겠는가 뭐 그럴 리는 없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대대로 일컫기를 백락은 말을 잘 다루고 옹기장이와 목수는 진흙과 나무를 잘 다룬다고 하니 이 또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과실이다.** 뭐 다스리는 자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죠. 어떤 자연사물에 대한 지식은 그 자연사물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죠. 그게 통치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하늘이 놓아 준 것

나는 생각하건대 천하를 잘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못 다스리는 거다. 저 사람들은 일정하게 타고난 본성이 있어서 길쌈을 해서 옷을 지어 입으며, 밭 갈아서 먹을 것을 장만하는데 이를 일러 태어나면서 다 같이 얻은 덕이라고 한다. 모두 한 결같지만 서로 짜고 이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이 놓아준 것이라고 부른다. 하늘이 놓아준 것처럼 그대로 놔두면 정말 잘 다스려 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말을 다루듯이 굴레를 씌우고 다리를 묶고 또 뭐, 옹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는 것처럼 목수가 나무를 다루는 것처럼, 그림쇠니 갈고리니 이따위 그 수단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삶과 본성을 억압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죠.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그런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교시 무정부주의적 정치관

▲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다 - 인위적인 것의 해

2장에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2장 보죠. 자연 그대로의 통나무를 해치지 않고서 누가 희준(犧樽)같은 제기를 만들 수 있으며, 통나무 그대로 제기가 될 수는 없죠. 결국 통나무를 해쳐야 제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옥을 훼손하지 않고 박옥이란 건 이제, 옥이 돌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돌을 깨내고 옥을 다듬어야죠. **박옥을 훼손하지 않고서 누가 규장(珪璋)을 만들 수 있으며, 규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옥 장식을 만들 수 있으며, 도덕을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인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 때 도덕은 인의와는 다른 거죠.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성정을 떠나지 않고서 어떻게 예악을 쓸 수 있으며 오색을 어지럽히지 않고서 누가 문체를 만들 수 있으며 아름다운 문체도 결국 오색을 어지럽히는 만행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오성을 어지럽히지 않고 누가 육률에 맞출 수 있겠는가? 무릇, 통나무를 해쳐서 그릇을 만든 것은 기술자들의 죄이고 도덕을 훼손하여 인의를 만들어 낸 것은 성인의 과실이다. 마찬가지죠. 통나무를 해쳐서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들의 과실. 인위를 만들어서 본래 타고난 도덕을 훼손하는 성인들의 과실, 모두 인위적인 정치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역시 1장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www.artnstudy.com

간섭을 배제하는 무정부주의적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백락과 성인 - 도둑질

그러고 뭐 3장에서도 말이 인제 어떻게 사는지. 쭉 있는데 한 번 보죠. 무릇 말은 평평한 땅에 살면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며, 기쁘면 목을 대고 서로 비벼대고 성나면 등을 지고 서로 걷어찬다. 말이 아는 것은 이 정도에서 그친다. 그런데 말에게 가로나무와 멍에를 달고 달 모양의 장식을 붙여 가지런히 정돈하게 되자 말이 끝을 부러뜨리고 저항 하는 거죠. 멍에를 망가뜨리고 멈추고 더디 걷고 재갈을 토해내고 고삐를 물어뜯을 줄 알게 된다. 따라서 말의 지혜로 도둑질 할 수 있게 된 것은 백락에게 있다. **백락이 말을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결국 도둑질을 하는 거다.** 그것처럼 천하를 잘 다스린다고 하는 성인도 잘 다스린 게 아니라 도둑질을 했다.

▲ 예악과 인의의 해악 - 백성들이 본성을 버리다.

혁서씨(赫胥氏)의 시대에는 상고시댑니다. 백성들이 집에 머물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목적이 없었다. 길을 갈 때도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고 먹을거리를 입에 물고 즐거워하며 배를 두드리며 놀았으니,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이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 성인들이 예악을 따라 몸을 구부리고 꺾게 해서 천하 사람들의 몸가짐을 바로잡으려 하며 인의를 내걸고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달램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이 비로소 발돋움하여 지혜를 좋아해서 다투어 이익을 추구하기에 멈출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또한 성인의 과실이다. 마치 말을 구속시켜서 결국 말이 저항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본성을 버리게 하고 인위적으로 다스리니까 백성들도 잔재주를 부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거협편

일단 변무편은 뭐 전체, 마제편은 변무편과 마찬가지로 전체내용이 인위적인 행위 성인의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성인의 과실 중에는 도둑질 하는 자를 도와주는 면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10편 거협편입니다. 거협편의 설명을 잠깐 보죠. 거협은 '거'는 열다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협'은 상자고요. 거협은 작은 상자를 연다. 즉 상자를 열어 상자 안의 물건을 훔친다는 뜻이다. 큰 도둑은 상자 째 가져가겠죠. 유가적인 인의(仁義), 성지(聖知)등은 위정자의 본질인 대도(大盜)를 감추고 대도적 행위, 도둑질을 덮고 감추는 허위의식에 불과하다 비난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옛날의 소박한 이상사회 지덕지세(至德之世)로 돌아가자 하는 식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거협편 인데요.

▲ 도둑을 돕는 큰 지혜 - 대도 전성자(田成子)

www.artnstudy.com

1장을 보겠습니다. 작은 상자를 열고 주머니를 뒤지고 궤짝을 뜯는 도둑을 염려하여 지키고 방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끈이나 줄을 당겨 단단히 묶고, 빗장과 자물쇠를 단단히 채운다. 이것이 세속에서 이른바 도둑을 방비하는 지혜다. 그러나 큰 도둑이 오면 이거는 큰 궤짝을 통째로 등에 지고 상자를 손에 들고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달아나면서 오직 끈이나 줄 빗장이나 자물쇠가 견고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앞서 이른바 지혜라는 것이 큰 도둑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의예지니 지혜니 뭐 이런 것 들은 도둑놈이 그 나라를 훔쳐가지 쉽게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인의예지니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결국 도둑들이, 나라 훔치는 도둑들이 훔쳐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주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가치가 결국 새로운 지배자에게 의해서 똑같은 이데올로기로 활용되는 경우 많잖아요. 조선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고려의 충신이라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복귀시켜서 충신을 권장하는 태도 사실 모순 되는 거죠. 모순 되긴 하지만 일단 그 새롭게 나라가 성립된 상황에서는 혁명이라든지 또는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모범적 가치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하나하나 따져 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시험 삼아 따져보려고 한다. 세속에서 이른 바 지혜라는 것이 큰 도둑을 위해 도와준 것이 아니겠으며 이른바 성(聖)이란 것이 큰 도둑을 위해 지켜준 것이 아니겠는가. 잘 훔쳐갈 수 있게요.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옛날 제나라는 이웃 고을이 서로 바라보이며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서 역시 그 인구가 많다 이거에요. 그물이 펼쳐지는 곳과 쟁기와 보습이 찌르는 곳이 사방 '그물이 펼쳐지고 쟁기와 보습이 찌른다' 이런 얘기는 그물을 펼쳐서 물고기를 잡아서 사는 삶의 터전, 쟁기와 보습이 찌르는 농토 이런 곳이 사방이 천리에 달했는데, 사방 국경 안을 통틀어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읍(邑)이니 옥(屋)이니 주(州)니 려(閭)니 향(鄕)이니 곡(曲) 등등의 고을을 구석구석까지 다스리매 어찌 성인을 본받지 않았겠는가마는, 전성자(田成子)가 하루아침에 제나라 임금을 죽이고 그 나라를 훔쳤으니 훔친 것이 어찌 나라뿐이겠는가 전성자 이야기는 유명하죠. 전성자는 사기(史記)에는 전상(田常)으로 나오고 논어에는 진항(陳恒)으로 나오고요. 항과 상이 같고 진과, 전이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떤 성(姓)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 그 때 발음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성이 뭐 고유의 그 어떤 사람들이 고유하게 주어져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이런 거 보면 흔들리는데요.

전성자 이야기는 이른바 원래 제나라는 강씨 제나랍니다. 강씨 제나란데 강씨 제나라가 전씨 제나라로 바뀝니다. 결국 전성자가 강씨 제나라를 전씨 제나라로 바꾼 사람이죠. 이 내용, 맹자에 나오는 제나라 선왕에 제나라 선왕은 강씨가 아닙니다. 전씨에요. 전백관입니다. 전성자가 제나라를 잡아먹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참으로 놀랍죠. 이를테면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후궁을 백 팔십 여 명을 둬요. 그런 다음에 자기 부하들이 후궁들과 관계를 맺는 걸 모른 체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 후궁들이 아이를 낳으면 전부 자기아들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만 한 뭐 이백 명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과 교역을 할 때, 받을 때에는 작은 됫박으로 받고 줄 때에는 큰 됫박으로 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나라 백성들은 전씨 집안과 거래를 하기만 하면 이익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인심을 차곡차곡 쌓았다가 결국 자연스럽게 제나라를 자기 나라로

www.artnstudy.com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계략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성인을 본받았는데도 전성자가 하루아침에 제나라 임금을 죽이고 그 나라를 훔쳤으니 훔친 것이 어찌 나라뿐이겠는가! 성인이 다스리던 그 성지(聖智)의 규범도 함께 훔쳤다. 그 때문에 전성자는 도적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몸은 요순과 같이 편안한 지위에 머물러 작은 나라가 감히 비난하지 못하고 큰 나라가 감히 죽으라하지 못해서 열 두세대 동안이나 제나라를 차지했으니 이는 제나라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성지의 규범까지 아울러 훔쳐서 도적의 몸을 지킨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인의예지니 뭐 성지의 규범이니 이런 것들은 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작은 도둑들은 방비할 수 있지만 **전성자처럼 큰 도둑들은 그런 인의예지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라의 다른 사람의 나라를 접수한다. 큰 도둑에게는 인의예지니 이런 것들도 상자를 묶는 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도둑들 도와주는 행위나 마찬 가지다.

▲ 재유편

그리고 재유편(在宥篇)을 보죠. 재유편은 있는 그대로 놔둔다(在=放任)는 뜻입니다. 재, 재는 '있는 그대로'란 뜻이고 유(宥)는 그냥 간섭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설명을 보죠. 3페이지 하단에요. 무위자연의 정치란 만물을 있는 그대로 있게 하고, 이게 '재(在)'자(字)의 뜻입니다. 방임한다는 뜻이고요. 그 본성을 이지러뜨리는 어떤 간섭도 가하지 않는 것 '유(宥)' 놔둔다. 불구속이죠. 즉 재유하는 정치다. **자유방임하는 정치**다. 재유 즉 무위자연에 정치에 대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이나 도덕규범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거기에 꿰어 맞추려는 정치. 즉, 이른바 유위의 정치다.

제 2편의 한 대목만 보죠. 천하를 있는 그대로 놓아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이게 재유입니다. 재유천하, 이렇게 천하를 있는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천하를 있는 그대로 두는 까닭은 천하 사람들이 지(知)와 욕(欲)의 작위(作爲) 때문에 타고난 본성을 어지럽힐 까 염려해서이고 놓아두는 까닭은 천하 사람들이 타고 난 덕을 바꿀까 염려해서이다. 천하 사람들이 자기본성을 어지럽히지 않고 자신의 덕을 바꾸지 않는다면 따로 천하를 다스릴 일이 있겠는가. 옛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는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억지로 즐기게 했으니 이는 편안하게 한 게 아니고 또 그리 천하를 다스릴 적에는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고달프게 자신의 본성을 괴롭히게 했으니 이는 즐겁게 한 것이 아니다. 편안하지 않고, 즐겁게 하지 못한 것은 타고난 덕이 아닌데 **타고난 덕이 아니고서 장구할 수 있는 경우는 천하에 하나도 없다.** 내용이 다 비슷하죠. 결국 변무, 마제, 거협, 재유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네 편은 같은 시기에 성립되었고, 또 같은 사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또는 그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대체로 무위의 정치를 지향하고 기존체제에 대한 격렬한 비판, 무정부주의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추수편

추수편(秋水篇)으로 넘어가보죠. 추수편은 이제 17편인데요. 장자의 출처와 관련된 부분이

www.artnstudy.com

이제 두 군데 5장 6장 뽑았구요. 마지막으로 추수편 제 7장 장자와 혜시가 서로 농하는,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명합니다. 5장을 한 번 보죠. 장자가 복수물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초나라 왕이 대부 두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국내의 정치로 누를 끼치기를 원하옵니다." 정치를 담당해 달라는 얘깁니다. "당신에게 누가 되겠지만 우리 나라를 다스려주세요." 이래요. 실제로 이럴 가능성은 없다 그랬죠. 혜시도 인정하지 않는 쓸모없는 주장인데 그걸 초나라 왕이 갑자기 인정해가지고 나라를 담당해 달라고 이야기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가공의 이야기라 보면 되고요. 어차피 대체로 우원(迂遠)입니다만 장자는 낚싯대를 손에 쥔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듣건대 죽어서 삼천년이나 되는 신령스런 거북이가 있다하더군요. 왕이 이것을 비단보에 싸고 상자에 넣어서 조상의 사당 안에 감추어 잘 모셔두었다고 합니다. 잘 모신 거죠. 그런데 이 거북이로 말하면 거북이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죽어서 뼈를 남겨 귀해지기를 바랐을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천하게라도 살아서 진흙탕 속에서 자유롭게 꼬리를 끌기를 바랐을 것인가? 두 대부는 입을 맞추듯이 함께 말했다. "그야 살아서 **진흙탕 속에서, 살아서 자유롭게 꼬리를 끌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가보쇼." 이런 얘깁니다. 나도 진흙탕 속에서 꼬리 끌겠소, 거기 끌려가가지고 괜히 모셔지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희생당하기 싫다. 이런 이야긴데 어쨌든 장자의 정신은 잘 드러난 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고돈처럼 살겠다.

6장도 비슷해요. 5장과 비슷한 이야기는 사마천 사기에도 기록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로 희생소의 비유죠. 희생소가 아주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편안하게 성장하지만 결국 태외(胎外)에 들어가서 죽을 때가 되면 저 들판에 있는 외로운 도야지 고돈(孤豚)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존재도 아니고 하필이면 외로운 돼지겠어요? 돼지라고 표현한 데서 장자의 해학을 엿볼 수가 있는데, 소가 그런 식으로 희생소가 되어서 멋있게 치장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있다가 나중에 죽는 거 보다. 죽을 때가 돼서 차라리 저 외로운 돼지가 되는 것이 낫겠다. 그 때 생각해 봤자 이미 늦다. 그런 이야기가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데, 막상 장자에는 똑같은 이야기는 없고 이건, 이 5장의, 추수편 5장과 흡사하죠. 서로 비교가 되는 부분이구요.

▲ 원추라는 새를 아는가?

그다음에 6장입니다.
혜자가 양나라 재상이 되었는데 장자가 가서 만나보려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자가 와서 당신을 대신해서 재상자리에 들어앉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혜자가 두려워서 온 도성 안을 사흘 밤낮동안 샅샅이 수색하여 장자를 붙잡으려 했다. 장자가 스스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남쪽에 새가 있는데 그 새 이름을 원추라고 하네. 자네 알고 있는가 이 원추는 멀리 남쪽 바다에서 날아올라 북쪽 바다로 날아가는데"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대붕의 비상을 거꾸로 이야기 한 거죠.
"오동나무가 아니면 머물지 않고 먹구슬나무 열매(練實)가 아니면 먹지 않고, 예천(醴泉)

www.artnstudy.com

이 아니면, 감로수겠죠. 마시지 않는다네. 그런데 그 때 솔개가 썩은 쥐 한 마리를 얻었는데 마침 원추라는 새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랬더니 솔개가 썩은 쥐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위를 보고 꽥! 하고 소리를 질렀다하더라. 지금 그대는 그대의 梁나라 재상 자리를 가지고 나에게 꽥! 소리지르느냐." 달리 뭐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죠.

▲ 희어지락(喜魚之樂)

그리고 이제 제 7장을 한 번 보죠 제 7장을 사실 이게 농담인데 농담을 제대로 이해한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장자하고 혜자(혜시/惠施) 이 두 사람이 그 호량(濠梁)이라고 하는 호라고 하면 물이고 호수 교량입니다. 연못 위에 있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못이 이렇게 있다 치면, 다리가 아치로 이렇게 연못 가운데 걸쳐진 다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치 형태로요. 구경하라고 돼 있는 거요. 여기에 놀러 갔어요. 놀러가서 이제 연못 다리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물고기들이 이제 '왔다갔다' 한다. '조어(儵魚)'라고 나옵니다. 조라고도 읽고 수라고도 읽는데 조라고 일단 읽고 '조어'라고 해서 장자가 그 물고기 '왔다갔다' 하는 걸 보고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구나 이거 참, 이게 바로 물고기의 즐거움이지." 어지락(魚之樂)을 얘기해요. 희어지락(喜魚之樂)이라 이것이 바로 물고기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장자가 감탄을 하니까, 혜시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요.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닌지 아느냐 그렇게 딴지를 걸어요. 장자가 이제 졸지에 공격을 당한 건데 장자가 받아칩니다. "내가 네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혜시가 다시 받아쳐요. " 내가 네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도 물고기가 아니니까 당연히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닌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그냥 내가 이겼다. 그리고 이겼다는 표현까지는 끝이다. 그러니까 장자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라. 처음에 네가 나보고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닌지 아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건, 네가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걸 안 거다. 네가 내가 아님에도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것처럼 나도 물고기가 아니지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닌지 안다."** 이런 식으로 받아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디서 알긴, 이 호수 교량위에서 알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맥락이 있어요.

▲ 아지지호상야(我知之濠上也) - 농담의 논리적 구조

7장이요, 장자와 혜자가 함께 호수의 돌다리 위에서 노닐고 있었는데 장자가 말했다. "피라미가 나와서 한가로이 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물고기의 즐거움일세." 혜자가 말했죠.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겠는가." 장자가 말했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지 알 수 있겠는가?" 혜자가 말했다. "내가 자네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자네를 알지 못하거니와 그것처럼 자

www.artnstudy.com

네도 당연히 물고기가 아닌지라 자네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네." 장자가 다시 말한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 가보세. 자네가 나를 보고 자네가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 알겠느냐고 말한 것은" 이게 생략돼있는 겁니다. 본문에 없어요. "자네가 내가 아닌데도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자네가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이므로 이미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일 세 어디서 알았냐고 어디서 알기는 나는 그것을 호숫가에서 알았지" 요 맥락이 있는데요. 원문에 요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런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장자와 혜시가 하는 농담의 논리적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논리적 구조를 알고 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혜시가 처음에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장자가 똑같은 논리로 받아쳤죠. 그러니까 혜시가 장자의 말을 받아서 장자가 혜시의 그 지적을 부당하다고 이야기 한 것은 혜시의 말을 받아친 거고, 또, 혜시가 다시 장자의 그 언급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장자의 말을 가지고 받아치죠. 서로 상대의 말을 받아친 겁니다. 그저 처음에 '물고기가 즐겁게 놀고 있구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혜시가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받아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받아치는 내용의 논리적 구조를 알면 제가 괄호 속에 넣어놓은 이 내용을 거기에 삽입할 수 가 있죠. 삽입하고 나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한 가지는 요 고 밑에 그 '아지지호상야(我知之濠上也)호'라고 마지막 글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제가 밑에 참고표시 해놨죠. 아지지호상야(我知之濠上也)호라고 이런 게 생략돼있습니다. "어디서 알긴 호숫가에서 알았지" 요게 한문인데 장자가 "니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느냐" 고 표현한 게, 안지어지락(安知漁至樂)이라고 나오죠. 어찌 안(安)자란 말이에요.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니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지(知),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을 안(安)을 하(何)자와 같죠. 그니깐 하이(何以)도 되고 하시(何時)도 되고 하처(何處)도 되고 다 돼요. 이건 '何'자 하나갖고요. 그걸 '하처(何處)'로 바꿔서 이해한 겁니다. '어떻게 니가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닌지 알 수 있냐' 이 얘기를 '어디서 그것을 알았느냐'는 식으로 살짝 바꾼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적한 게 곽말약(郭沫若)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곽말약에 보다 보니까 요렇게 돼있더라고요. 안지어락(安知魚樂)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을 일부러 '어디에서 알았느냐'고 물은 것처럼 슬쩍 왜곡해가지고 어디서 "알긴 어디서 알어, 호숫가에서 알았지" 이런 식으로 농담한 것이다. 그러니까 곽말약은 장자가 혜시의 본의를 일부러 곡해해서 '안(安)'을 '하처(何處)'의 뜻으로 쓰고 일부러 그 장소를 말했다고 하는데 아주 뛰어난 견해입니다. 이걸 요렇게 밝힌 견해는 곽말약 이외에는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 외편(外篇), 잡편(雜篇)을 읽는 즐거움

예, 추수편(秋水篇)에 나오는 농담 하는 부분까지 읽어 봤는데요. 이런 식의 농담이 장자의 도처에 나오는데 외편이나 좌편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오히려 내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장의 논리적 구성이 허술한 게 많고,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가 서로 앞뒤로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는 내편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렇다 하더

www.artnstudy.com

라도 어쨌든 내편에 나와 있는 장자적 사유가 외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대중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해질 수 있는 소재가 외편 잡편(雜篇)에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으로 읽는 데에는 대단히 커다란 즐거움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외편(外篇), 잡편(雜篇)도, 외편, 잡편은 뭐 이번에 읽어본 대목으로 치면, 몇 군데 안 됩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외편의 일부분을 읽어보고 일단 장자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www.artnstudy.com